

미산 옥수수 안정세, 대두 및 박류 사정 악화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USDA 옥수수 용자가격 대폭인하

전반적으로 곡물시세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86년도 USDA 옥수수 용자단가(Roan Rate)가 크게 인하·발표되었다.

존 볼록 미농무장관은 1월 13일 1986년도 미산 옥수수의 용자가격을 지난해의 부셸당 2.55달러로부터 최대한 인하한 1.92달러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목표가격(Target Price)은 3.03달러로 결정하였고, 금년도 옥수수 생산면적에 대해서는 20% 삭감계획(17.5%는 자발적 삭감, 2.5%는 보상)을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86년산 미산소맥의 용자가격은 부셸당 3.30달러로 식부면적은 25% 삭감(22.5%는 자발적 삭감, 2.5%는 보상)하였고 수수의 용자가격은 1.82달러, 대맥은 1.56달러, 귀리 0.99달러, 호밀 1.63달러로 결정하였으며, 대두에 대해서도 용자가격을 인하할 의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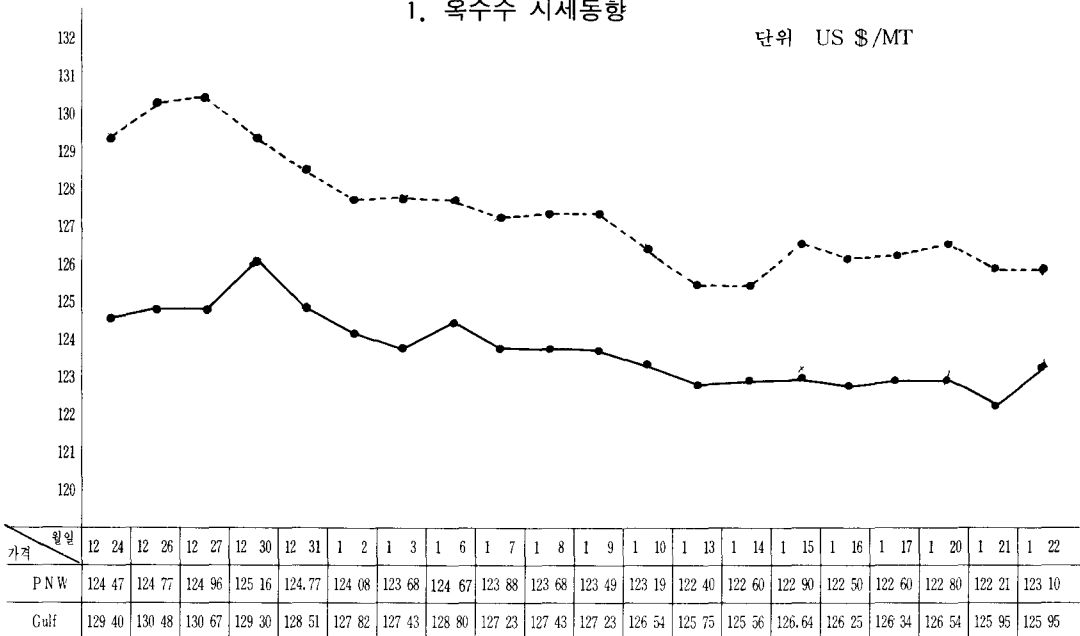
이와같은 86년 용자가격의 인하로 인하여 금후 옥수수를 비롯한 미산 곡물시세는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 태국산 옥수수 가격진폭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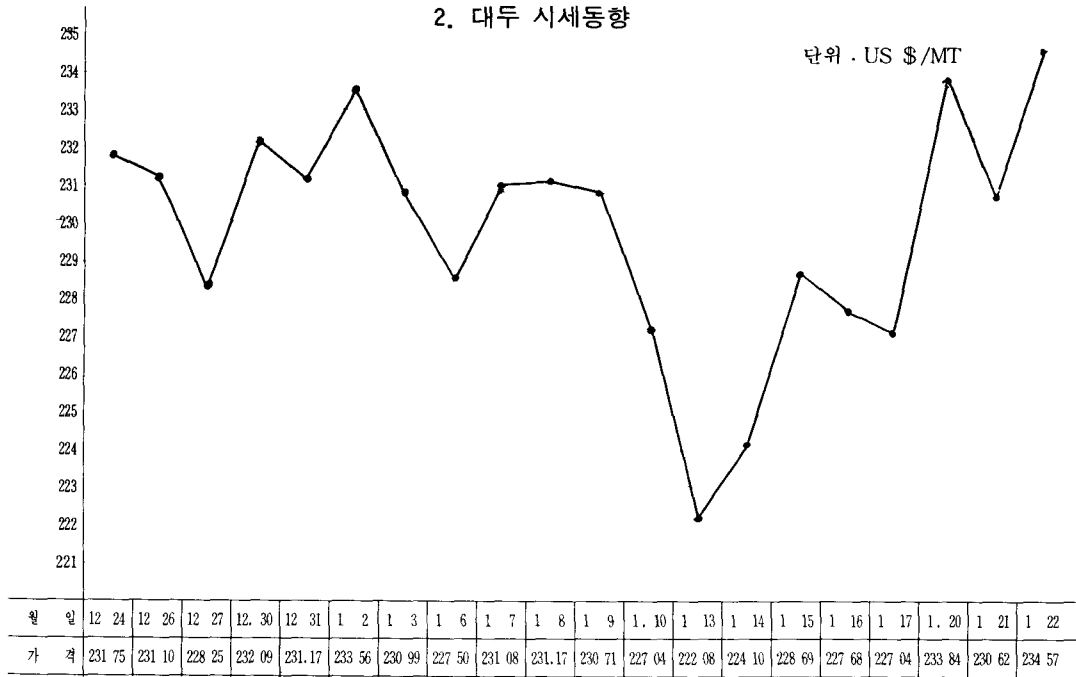
지난해 12월이후 다소 강세현상을 보여오던 미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US \$/MT



2. 대두 시세동향



산 옥수수시세는 이제 120~125불선에서 거의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태국산 옥수수의 경우 심한 가격 등락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옥수수가 공협회 입찰에서 이플라톡신 50ppb기준으로 톤당 C&F가격이 102불대에 낙찰되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강세현상을 보여 C&F톤당 110 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불대의 옥가공 입찰가격은 전혀 예측지 못한 낮은 가격으로 현지소식통에 의하면 필리핀과 거래하고 있던 Exporter가 필리핀에 대한 수출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한국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물론 태국산 옥수수가 다시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가격수준은 미산 옥수수시세를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Thai Maize의 수출여력에 대한 국내곡물상사인 해태상사에 따르면 금년도 태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대략 500만톤으로 생산량중 자국소비

물량 160만톤과 지난해 9월부터 2월 현재까지의 수출물량 170만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량 100만톤 가량을 제하면 대략 70만톤 가량의 수출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후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태국내 옥수수 재고수준 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두사정 악화, 가격급등

한편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해오던 미산 대두시세는 지난 9월 기준 115불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10불이상 반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미산 대두시세의 급등현상은 최근 브라질의 대두 사정악화에 기인하고 있다.

1월 10일자 일본무역 일일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두생산지대의 대한발로 인해 금년도 브라질 대두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미국의 민간 곡물조사기구인 어그리 바이저 서비스사의 7일 현지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대두 수확예상량은 970~1,070만톤으로 예상되며, 이와같은 예상은 지금까지 브라질 농업성의 예상치인 1,318~1,348만톤, 미농무성의 1,620만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는 최근 브라질이 한발피해로 인해 식부작업에 타격을 받아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에까지 악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에이커당 평균 수확량도 15.3부셀로 전년도 25.3 부셀에 비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대두의 35%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리오구란테트슬 지방에서는 현재까지 식부지역이 45%밖에 되지 않으며, 파라나지방에서도 10~15%가 식부작업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1월 10일 시카고곡물거래소 주변의 업계소식통에서는 금년도 브라질 대두생산량이 1000만톤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1월 13일 USDA CROP REPORT에서도 12월 10일 예상치인 1,620 만톤에 비해 270만톤 감소한 1,350만톤으로 수정·발표하였다.

■ 식물성 박류 수급 어려워져

또한 지난해 6월이후 지속적인 강세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미산대두박시세도 여전히 210불수준에서 강세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두박시세의 강세현상은 세계 대두박수급을 좌우하는 남미산 대두박재고가 급격히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다.

대두박 기초재고의 경우 1월 13일 발표된 CROP REPOR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브라질의 경우 32%가 감소하였으며 세계전체적으로는 약 10.3%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대두박 생산량은 2.1%로 크게 증가하지 않아 금년도 기말재고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감소될 예정이다. 이와같이 대두박재고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식용유 소비가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식물성 박류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최근 미산 대두박시세는 톤당 C&F 가격으로 210불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중공산 대두박 역시 재고소진으로 인해 금후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수입대두박의 값싼 구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두박의 대체품목인 캐나다산 채종박 역시 재고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C&F 155불선에서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 타피오카, Non-EEC 지역 강세

옥수수수의 안정세에 힘입어 기타곡물시세 역시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소맥의 경우 호주산, 캐나다산 공히 C&F 톤당가격이 120불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수수는 중공산이 97불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미산 수수는 115불대의 높은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밀도 캐나다산은 115불대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폴란드산은 109불대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태국산 타피오카 하드펠렛시세는 톤당 C&F 75불수준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강세현상을 보여 산지 제시가격이 C&F 80불을 웃돌고 있다. 현지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현재 EC지역으로 향하는 수출확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EC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의욕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EC로 향하는 수출가격은 Non-EEC 지역에 비해 FOB 톤당 35불정도 높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현재 EC 수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금후 타피오카시세는 강세현상이 지속되다가 EC수출이 일단락 되고 나서야 다소약세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